

# 중진스님 초발심으로

“아이고! 스님 오셨습니까?”  
 “그동안 잘 계셨지요?”  
 3월 31일 경북 김천 제8교구 본사 지자사 설법전. 전국에서 모인 50여명의 스님들이 서로 안부를 물으며 정답게 인사를 나눈다. 이들 스님들은 조계종 교육원에서 주최한 제3회 중진 지도자과정 연수에 참가한 승랍 25년차 이상 되는 교계 중진 스님들. 비슷한 시기에 출가를 했지만 전국에 흩어져 수행, 포교, 중무행정에 매진해왔기에 평소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았다. 스님들은 오랜만에 만난 도반의 손을 꼭 잡으며 연신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승랍 25년 이상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 1급 승가고시와 종덕 법계(비구니 스님은 현대 법제를 풀수 받았고 계단위원, 법계위원, 호계위원, 본사 주지 등 중진의 주요 소임을 맡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교계 중진 중의 중진 스님이기 때문이다. 또한 중단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교육이 없는 것도 그 이유 중의 하나다. 이번 연수는 중진스님들의 승가 역량 강화와 지도자로서 갖

추여야 할 기본 소양을 함양시키기 위해 ‘불교지도자의 사명과 자세’, ‘불교상담’, ‘세계의 흐름’, ‘지도자론’, ‘종헌과 국가법령의 이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임시 입승 소임을 맡은 무상 스님은 직접 교육 시간 10분마다 목탁을 내렸고 스님들은 마치 행사교육을 받는 사미승처럼 연수 규율을 지켰다. 강의시간에는 일일이 메모를 하는 등 진지한 모습이 나타났다.

4월 1일과 2일 저녁 예불 이후 열린 지도자 진단 워크숍과 지도자의 역할에 대한 토론 시간. 3개조로 나뉜 스님들은 저마다 속해있는 조에서 복지, 교육 등 불교계 제반 문제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연차별 참가 연수도 모든 스님들이 참석하는 의무교육으로 체계화해야 된다는 등 승가 교육제도에 관한 조언도 많았다. 범법 스님의 사회로 진행된 레크리에이션 시간에는 이십전심, 강강술래 등 불교와 접목된 전통 놀이를 배우며 동심의 세계에 빠지기도 했다.

김천=김두식 기자 doob@buddhapia.com

## 직지사서 조계종 지도자과정 연수 복지 교육 등 주제로 워크숍·토론

4월 1일과 2일 저녁 예불 이후 열린 지도자 진단 워크숍과 지도자의 역할에 대한 토론 시간. 3개조로 나뉜 스님들은 저마다 속해있는 조에서 복지, 교육 등 불교계 제반 문제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연차별 참가 연수도 모든 스님들이 참석하는 의무교육으로 체계화해야 된다는 등 승가 교육제도에 관한 조언도 많았다. 범법 스님의 사회로 진행된 레크리에이션 시간에는 이십전심, 강강술래 등 불교와 접목된 전통 놀이를 배우며 동심의 세계에 빠지기도 했다.

## 총선 선택기준 ‘종교’ 보다 ‘자질’

### 불교계 오피니언 리더 145명 설문조사

불교계 오피니언 리더들은 국회의원 후보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종교 성은 배제하고, 사찰 범죄 등 불교행사가 정치행위에 이용되는 것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2004 맑은 정치 불교연대’가 17대 총선을 맞아 중앙종회의원, 각 교구본사 소임자, 조계종 주요사찰 주지, 불교단체 대표 및 주요임원 등 불교계 오피니언 리더 145명을 대상으로 3월 5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온·오프라인 설문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오피니언 리더들은 ‘불자 후보가 시민단체에서 선정한 낙천낙선 대상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지지하지 않겠다’(33.3%, 48명)가 ‘고려 안함’(12.5%, 18명) ‘일체 고려 않겠다’(5.6%, 8명)보다 많아 후보 선택 시 종교성 배제를 보여줬다.

이 같은 결과는 ‘17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

게 생각하는 기준’을 묻는 질문에 ‘자질과 성실성(52.5%, 74명)’, ‘도덕성(23.4%, 33명)’, ‘개혁성(15.6% 22명)’, ‘종교적 배경(0.7%, 1명)’이라고 답한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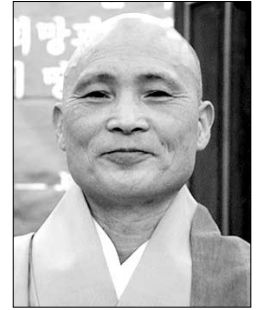
‘사찰의 범죄 등에서 불교계 공약을 내세우는 정당 및 특정후보자에 대해 지지하거나 반대하자는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표시하는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란 질문에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음(22.2%, 32명)’, ‘바람직 않음(41.4%, 60명)’, ‘바람직하다(25.7%, 37명)’, ‘매우 바람직하다(2.1%, 3명)’, ‘보다 높아 불교계의 정치행위에 부정적인 견해를 표출했다.

또 오피니언 리더들은 정치권의 정치개혁 노력에 대해 61.1%(88명)가 노력하지 않거나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답해 정치권 불신을 보여줬다. 정치개혁의 가장 큰 선결과제는 ‘정치자금 투명화(31.7%, 복수 선택)’를 꼽았다.

남동우 기자

## 화합 기반으로 발전 노력

### 인터뷰 범어사 주지 추천 대성 스님



“문중 어른스님들과 문도들의 뜻을 받들어 화합 문중을 만드는 것에 가장 주안점을 둘 것입니다. 또한 선찰대본산의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4월 2일 범어사 보제루에서 열린 범어사 산중총회에서 범

화를 기반으로 대중 포교에 앞장설 것이다”고 말했다. 경부고속철 금정산 관통문제, 문화재 국고보조금 횡령 사건, 성보박물관 효율적인 운영 등 범어사 현안에 대해서는 문도들의 뜻을 모아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성 스님은 “선찰대본산의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문도들의 중의를 물어 총된 승려도 고려하겠다”며 “선의 중심 도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962년 동산 스님은 은사로 출가한 대성 스님은 1963년 용화사 법보선원 안거를 비롯, 10년 간 선원 수행한 이후 조계종 재심위원을 역임했다. 또한 스님은 1976년부터는 범어사 말사 김해은하사 주지를 역임하며 지역 포교에 큰 역할을 해 왔다.

범어사=천미희 기자

## 禪문화 기반으로 대중 포교에 앞장

범어사 주지로 추천된 대성(현 범어사 주지 직무 대행) 스님은 ‘화합’을 강조하며 당선 소감을 피력했다. 범어사 조실 지유 스님 등 162명 성원으로 개최된 산중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범어사 선결과제로 ‘화합’을 거듭 강조한 스님은 “3년만에 결룬이 난 만큼 위계질서를 바로 잡아 지역과 교계 안팎의 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성 스님은 “범어사가 새로워지기 위한 노력을 시급하다”고 전제한 뒤 “21세기를 이끌어갈 정신문화의 핵심인 선불교 문

“선찰대본산의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문도들의 중의를 물어 총된 승려도 고려하겠다”며 “선의 중심 도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962년 동산 스님은 은사로 출가한 대성 스님은 1963년 용화사 법보선원 안거를 비롯, 10년 간 선원 수행한 이후 조계종 재심위원을 역임했다. 또한 스님은 1976년부터는 범어사 말사 김해은하사 주지를 역임하며 지역 포교에 큰 역할을 해 왔다.

범어사=천미희 기자

## 조계사, 인근 공사장서 항의집회

### “교육관 기울고 균열”... 원상복구 촉구

조계사(주지 지홍)는 인근 두산건설 위브 파빌리온(옛 삼양사 건물터) 지하 굴착 공사로 교육관 건물의 지반이 침하됨에 따라, 3월 31일 공사장 입구에서 스님과 신도 4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항의집회를 벌였다.

조계사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두산건설의 공사로 교육관이 6cm 이상 기울었고, 외벽과 바닥 등에 새로 136곳의 대형균열이 생겨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며 “교육관을 원상복구할 것”을 촉구했다.

조계사는 또 “여러 차례 두산건설 측에 교육관 건물의 원상복구를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책임을 회피, 조계사를 우롱하고 있다”며 “조계사가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재)한국건설기술원에 의뢰해 받은 피해안 진단단 결과대로 교육관을 복구하라”고 밝혔다.

김철우 기자



생명나눔실천본부 창립 10주년 기념식.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범법)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3월 31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념식을 열었다. 범법 스님은 기념사에서 “정기포교, 헌혈 운동, 치료비지원 등 본부가 벌여온 운동을 더욱 활성화해 건강한 사회운동으로 승화시켜 가겠다”고 말했다. 사진=박재민 기자

## 고속철 천성산 관통 중단 촉구

### 초록국회만들기 네트워크

66개 환경단체로 구성된 ‘2004 총선환경연대’와 25개 지역 환경단체로 구성된 ‘초록국회만들기 네트워크’가 고속철도 천성산·금정산 관통 중단 등을 촉구했다.

두 단체는 3월 31일 월화카페 느티나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환경 현안에 대한 제안으로 △세간금 갯벌의 해수유통과 전복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도출 △부안 해

기장 백지화와 핵폐기장 추진 계획 중단 △고속철도 천성산·금정산 관통 중단과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후 노선 재검토 등을 꼽았다.

단체들은 대국민공동선언을 통해 “17대 국회는 생명을 존중하고 미래 세대를 중시 여기는 정책을 만들어 내고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004 총선환경연대에 불교계에선 불교환경연대와 인드라마생명공동체가 포함돼 있다. 남동우 기자

### 불교TV 주주총회 열어

불교TV(회장 성우)는 3월 30일 서울 봉천동 불교TV 1층 무상사 법당에서 제10기 불교TV 정기주주총회를 열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영업보고 및 감사보고 △순익계산서 및 결산금처리계산서 승인의 건 △정관 일부변경의 건 △신임이사 선임의 건 △임원보수 한도 승인의 건 등이 논의됐다.

한상희 기자

### 범보신문 기자 부상

불교TV 주총서, 불기협 성명

3월 30일 불교TV 주주총회장에서 범보신문(사장 각현)의 안문욱 기자가 출입을 제지한 불교TV 직원들에 의해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이와 관련 범보신문은 “강압적인 취재거부로 인해 벌어진 폭행”이라며 “관련자에 대해 고발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불교TV는 4월 2

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범보신문 측이 취재거부사를 무기한 채 주주들에게 신문을 배포해 이를 막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진 것”이라며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에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김원우)는 2일 성명서를 발표해 “언론기관에서 타 언론의 취재를 방해한 폭력행위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불교TV는 공개사과하고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한상희 기자

## 목탁소리

3월 30일 불교TV 무상사에서 열린 제10기 불교TV 주주총회는 경영진 대 일부 주주, 주주 대 주주의 갈등으로 얼룩진 ‘아수라장’이었다. 이날 참석한 일부 주주들이 삼천불 모연금의 지출 내역, 봉천동 불교TV 사옥, 각종 후원금 및 수

디지털 방송시대에 접어들어 지금, 교계의 조연과 관심을 모아 경쟁력을 키워야 할 때지만 불교TV를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꺼질 줄 모른다. 불교TV 경영진은 끊임없이 지적되는 경영문제에 대해 “회계법상의 차이에서 빚어진 오해”라며 “경영권을 둘러싼 불교TV 편파”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불교TV는

## 떡살잡이 주주총회

모든 장부를 공개해 서라도 회계전반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분위기는 더욱 악화됐다. 결국 주주 몇 명이 서로 떡살을 잡는 사태까지 일어났다.

이를 지켜보던 나머지 주주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하나 둘 참석장을 떠나 주총이 열린지 한 시간도 안돼 3분의 1이상이 자리를 비웠다.

한상희 기자

모든 장부를 공개해 서라도 회계전반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분위기는 더욱 악화됐다. 결국 주주 몇 명이 서로 떡살을 잡는 사태까지 일어났다.

이를 지켜보던 나머지 주주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하나 둘 참석장을 떠나 주총이 열린지 한 시간도 안돼 3분의 1이상이 자리를 비웠다.

한상희 기자

# 감사의 말씀

佛敎 總指宗 宗領 修成 大宗師께서 總紀 33年(佛紀 2548年) 3月 29日 대구 경북대병원에서 入寂하시어 3月 31日 경북대병원 발인식장에서 告訣式을 교계 관계자 및 내외 귀빈, 전국 스승님과 교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總指宗 宗團葬으로 엄숙하게 봉행하였습니다.

公私多忙하심에도 불구하고 애도의 심정으로 참석해 주신데 대해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올림이 도리인 줄 아오나 황망한 喪中이므로 우선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紀 33年 4月  
佛敎 總指宗 葬儀委員長 愚勝 합장

## 四十九齋案内

종령 수성 대종사의 사십구재를 다음과 같이 봉행합니다.

- 조제 4월 4일 (음력 2월 15일) 14시
- 2제 4월 11일 (음력 2월 22일) 14시
- 3제 4월 18일 (음력 2월 29일) 14시
- 4제 4월 25일 (음력 3월 7일) 14시
- 5제 5월 2일 (음력 3월 14일) 14시
- 6제 5월 9일 (음력 3월 21일) 14시
- 7제 5월 16일 (음력 3월 28일) 14시

- 각 사원별로 49재를 봉행함.
- 문의 : 불교총지중 통리원 전화 : (02)552-1080-3